

분류	현직교사 수련회
제목	1강: 랍비 - 교사
성경	디모데후서 3:14
일시	2012년 1월 18일
장소	렘넌트 신학교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디모데후서 3:14)**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 **녹취 자료** ♣

♣ **서론- 랍비(교사, 딤후3:14)**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깔려 있다. 랍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다. 그리고 회당,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온다. 왜 그랬을까? 랍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교사이다. 회당은 문화 쪽도 되지만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딤후 3:14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단어를 자세히 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사실상 이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놓였다.

▶왜 위기에 놓였을까? 이스라엘은 사실상 랍비 문화였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때 늘 문제가 왔다. 어느 정도 랍비문화인가 하면 랍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도 하고 이사도 갔다. 랍비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 선진국이란 어디든 마찬가지이다. 선진국 미국을 가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노란 차가 다니면 절대 질러가지 않고 기다린다. 우리 손녀가 학교에 갔다 오는데 어떤 어른이 박아놓고 도망을 갔다. 어느 정도 됐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번호를 적어 왔다. 번호를 보고 찾아냈다. 찾으니깐 당연히 몰랐다고 한다. 아이들을 박아놓고 도망을 간다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용서해주더라도 고발을 해라. 깨닫게 해줘야 한다. 내가 위치가 이렇게 않으면 나서서 그런 사람의 버릇을 고칠 건데, 일단 그렇게 놓고 보고 있다.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길에 나오면 차가 안 간다. 심지어 일본 천황도 학교에 방문했을 때 마차에서 내리서 걸어갔다 고 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교육에 문제가 온다. 그때 큰 위기를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을 때 랍비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행전 5:34에 보면 가말리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죽으려고 하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몇 개 대면서 이야기 했다. 잘못된 단체가 일어나면 가만히 뒤도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심하게 저 사람들을 건드리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단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 아닌가? 워낙 영향력 있는 교사가 이 말을 하니까 사도들을 풀어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의 일어난다는 시작이 된 거라 본다.

▶지금 한국에도 사실은 학교 교육의 위기가 왔다. 이제서 아이들이 사실상 죽어도 모를 정도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때리거나 말라,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인격을 이야기 하니까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 속으로 아이들은 인격이 있고 선생은 인격 없는가? 라고 했다.

인격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격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인격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다루고 선생은 선생님답게 다루는 것이 인격이지 무조건 억누르고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상당히 위기가 왔다. 부모님 자체가 선생 알기를 지나가는 장사꾼 취급을 한다.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 하겠는가? 지식을 배운다고 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선생 없이 배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가? 선생들이 화가 날 때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심하게 말하거나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선생들이 아이들을 때릴 때 교육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이다.

▶옛날에 어머니에게서 맞았는데 분명히 감정 넣어 때리더라. 감정이 안 들어가는 때는 사실 때가 아니다. 장난삼아 때리는 것이 매인가? 감정 넣어 때려야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대충은 알겠지만 학교 분위기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분위기가 있다.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 공부할 때가 50년 전이다. 그때 어디서 나왔는지 여자들 나체 사진들이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돌았다.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선생님들은 모르지요? 아이들의 상황을 실제로 잘 모르잖아요. 남학생들은 모이면 싸우는 등수가 다 있다. 나름대로 묘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그냥 풀어놓으면 보통 문제가 옵니다. 이젠 서서히 학교를 안 보내야 되겠다고 이런 말하는 부모들도 많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미래를 볼 때 굉장히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로 선생님이러면 사상도 양쪽 것을 봐야 한다. 너무 보수파는 지나치게 얽어매는 파이고 진보파는 지나치게 이탈하는 상황이다. 또 보수파에서는 너무 북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진보파에서는 너무 어긋나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혹시 내 개인은 어떤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양론을 가지고 보도록 해줘야 한다. 우리의 눈은 시력이 있다.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눈은 2.0이고 한 쪽은 0.2고 하면 보는데 혼란이 온다. 일단 거리측정도 잘 안 된다. 부정, 긍정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쪽저쪽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니까, 한국은 선생부터 엉망이다. 학교를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로 만들어진 것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긴다.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문교부나 공식적인 선생님들 교육에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다. 상당히 대안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초등학교까지 대안학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많은 것 중에, 요6:63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일단 여러분은 교사인데 그냥 교사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교사이다.

▶그래서 딤후 3:14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선생 이전에 모든 기독교인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매일매일 내가 정말 확신 있는 거기에 거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 자세히 쳐다보면 실제로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학교, 정책, 사상, 국가 정부 그것까지 언급하기 이전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랍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제자가 나온다. 복음 깨달은 제자가 나온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다. 올해 원단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것은 기도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확신을 거하라는 말인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행 1:1을 보면 누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한 것을 보면 롬 16:25~27이다. 이것을 원단메시지 때 이야기를 했다.

1.행 1:1

(1)행1:1(그리스도)

▶만드시 우리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영적문제가 온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닌 유일성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교백을 하니까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널리 알려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그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그 말이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치 없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다.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2)행2:1(체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아주 중요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은 뭐냐? 체휼이다. 아 그랬구나.

(3)행3:1(현장)

▶그러면 디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행 3:1이다. 성령충만 받고 나가는 시간이다. 전으로부터 왔는데 이 앉은뱅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현장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에는 많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에 많은 것이 좌우하게 된다. 여러분은 쉽게 말해 고기로 말하면 가두리 양식장에 와 있다. 신경 쓸 것 없다. 이런 것을 비밀스럽게 잘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일단 교사 이전에 기독교인이다.

2.롬 16:25~27

▶롬 16:25~27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1)25절- 감추어진 것(역사)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역사를 보라. 적어도 모세가 출 3:18 언약을 붙잡고 나올 때는 400년이 지났다. 거기에 대한 감추어진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세 절기, 유월절·오순절·수장절. 거기서 깨달아진 것이 장막. 거기서 깨달아진 것이 많이 중요한 것 전부 언약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마틴 루터까지가 1500년이다. 그동안에 또 없어졌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찾아낸 것이 말씀을 찾아냈다. 그리고 지금 500년이 흘렀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는 중에 여러분은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가장 미래의 재목이 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찾아내야 한다. 역사를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2)26절- 이제(학교)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나는 ‘이제’를 여러분 입장에서 학교라고 본다. 여러 역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어 전도할 곳이 학교이다.

(3)27절- 영원(구원)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 세계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실재들을 말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제자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가? 학교에서 사실상 일하면서 이 상황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3.안 되는 것

▶지금 현재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만 이해해도 당장 이 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계획도 세우고 큰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진도 프로그램을 짜고 선교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사람 소리

▶저는 가보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사람 소리이다. 사람 소리를 듣고 말하고 전달하는 데 거의 여기서 속는다. 여러분 속지 말라. 사람 소리를 너무 못 들으면 바보처럼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 사람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사람 소리에 속지 않아야 한다. 거의 이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제대로 하겠는가 못하겠느냐는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이 사람 소리에 거의 예민하다. 또 어떤 기독교인은 사람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왕대 당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밖에서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보면 기독교인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찾아가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 이 말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일반사람이면 괜찮은데 선생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절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너무 사람 말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잘 해도 학교라는 현장은 최고의 현장이다.

(2)현실 소리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것이 뭐가? 현실 소리이다. 현실 소리만 듣는다. 성경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너무 현실 소리만 들으면 그것이 맞다. 열 두 명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10명이 못 간다는데, 현실적으로 딱 맞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대성동곡을 했다.

(3)자신 소리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 소리이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되어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

◆결론- 세 가지 작품

▶일단 여러분은 세 가지 작품을 만들어라. 교사는 꼭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전공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상도 있을 것이다.

(1)나를 누리는 작품(전문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를 누리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을 보고 전문성이라고 한다.

(2)전달할 작품(전문화)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학문을 전달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을 보고 전문화라고 한다.

(2)신앙누리는 작품(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제대로 누리는 작품을 만들어라. 교사 때 해야 되고 교사가 해야 된다. 이것을 보고 복음화라고 한다. 교사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듣지 않는가? 여러분은 전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일반 아줌마 같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분은 교사이다. 박00 선생이 있다. 이 사람은 음악선생이다. 음악선생인데 멋있다. 보통 선생님을 보면 아이들 보고 조용하라고 한다. 이 사람은 딱 들어오면 오르간으로 간다. 얼마나 잘 쳤는가? 아이들이 조용해진다.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만 해도 굉장히 많다. 한 번은 여류성경학교 주교강습 때 음악 주강사로 초청했다.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여류성경학교 강습 때 수십 번 참석했는데 참석한 것 중에 제일 나왔다. 이 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지 모른다. 크게 많이 준비한 것이 아닌 약간 준비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정회권 선교사님 동생 정희익이라는 분이 있다. 한국에서 학교에 있을 때 부모와 아이들과 상담한 것을 책으로 냈다. 그것만 했는데도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모른다. 여러분이 일이 많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된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 교사는 이 일도 많고 저 일도 많고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따져버리면 아무 것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준비를 해버리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온다.

(The end)

분류	현직교사 수련회
제목	2강: 회당 - 학교
성경	사도행전 17:1, 18:4
일시	2012년 1월 18일
장소	렘넌트 신학교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사도행전 17:1, 18:4)

- 0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 0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 녹취 자료 ◆

◆서론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회당을, 바울이 반드시 회당 앞을 갔다. 중요한 일꾼이 나오면 그 일꾼과 같이 회당을 겨냥했다. 행19:8-10에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제자와 같이 회당으로 향했다. 왜 그랬을까?

1.모든 것 다 있다.

▶이 회당에는 모든 것 다 있다. 이 회당은 물론 학교만은 아닌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1)사람

▶사실상 이 회당에 가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2)문화

▶또 이 회당에는 사실상 문화가 다 있고 문화가 움직이는 곳이다.

(3)미래

▶이 회당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므로 여기에 미래가 다 있다. 외국에도 가보면 그렇고 학교라는 이 부분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다 있다. 자, 학교에 가면 학생만 있는가? 선생님이고 교수도 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하다. 잘 생각해 보면 선생부터 살려야 한다. 또 학교에 가보면 많은 부분에 문화들이 다 들어 있다. 그것뿐인가? 학부모들도 있다. 이런 것을 놓고 조금 연구해보면 굉장히 해야 될 것이 많고 가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은 학교에 투자도 한다. 무궁무진한 것이 이 부분에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인도 받는 바울은 회당을 겨냥했다.

2.반드시 할 것

▶자, 여러분은 교사이고 기독교인이다. 반드시 할 것 몇 가지가 있다.

(1)방향 -달란트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들의 학업 방향과 달란트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중고등부 집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초중고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을 헛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아이들이 각 분야에 전부 봐야만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보니까 제한돼 버린다. 이래 가지고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돌려 씌우는데 개인의 문제이다. 그것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1)달란트(책)

▶가장 쉬운 예를 얘기해보겠다. 유대인들은 13-15세 사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이미 자기 달란트를 다 찾았다. 이 교육을 유대인은 물론 랍비와 부모님이 같이 한다. 그래서 이미 15살이 되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한다. 과연 이 부분이 없겠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여라, 그것은 헛소리이다. 어떻게 책을 많이 읽겠는가?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교 공부도 바쁜데 무슨 책을 많이 읽는가? 아이들이 세상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책이 있다. 이것은 1년이면 1년 내가 근무하는 것을 맞추어서, 선정을 해서 알려줘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교학을 읽어 가지고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선교사의 삶 속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 그러려면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불가능하니까 책밖에 없다. 아이들을 향하여 책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한 시간만 인턴십을 하라. 애내들에게 의학책을 읽어서는 소용이 없다. 의사가 될 것이 아니라든 소용이 없다. 예를 들면 슈바이처라든지 허준이라든지 의사에 대한 삶을 한번쯤 들어가서 봐야 한다. 이것을 교사들이 꼭 해야 된다고 본다. 교사들이 꼭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만 시간을 내도된다. 자칫 잘못해버리면 아이들은

잠자고 일어나는데 바쁘고, 친구들과 바쁘고 학교 공부하기에 바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 부분 발견을 전혀 못한다. 전혀 못하니 공부해서 점수 나온 것을 대충 결정한다. 완전히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된다. 교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약간만 도와줘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된다. 나도 여러 선생들을 만났다. 선생님 가운데 김경엽이라고 이름도 기억한다. 옛날에 보면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큼의 책이 있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머니에서 책을 꺼낸다. 이것을 재미있게 읽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 한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을 전혀 말 안하는데 그런 것을 알도록 얘기를 해준 것이다. 이 선생이 보통 선생이 아니다. 역시나 어느 날 보니까 큰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됐다. 우리가 이런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적인 힘을 얻도록 해주어야 우리는 학업만 계속 하다가 힘이 다 빠진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꼭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손녀, 손자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방법이 없다. 애들이 여러 삶을 경험하면서 '이것이다' 왜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게 해줄 것인가 중요하다.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의 이상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음악 전공이고, 아빠는 구르고 노는 것을 잘 한다. 애들이 전부 그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손녀보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에게 카드로 자기 꿈을 이야기 했다. 카드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꿈은 가수란다.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서는 거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휘든지 시켜놓고 아이들이 고르는 것이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2) 방향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방향이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굉장한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대충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줬다.

▶우리가 자격을 따는 공부가 있다. 사범고시, 외무고시, 이 고시이다. 그 다음에 의사이다. 현재는 제일로 달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와 지방 의대의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 그 아이들이 정치를 하려면 관공사 등을 통해 경형을 쌓고 정치를 한다. 그 다음에 미래를 쳐다보면 선진국형들이 있다. 금융, 경제, 이런 쪽이 있다.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시를 쳐야 할 경우 어떤 외국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지금은 무조건 나간다. 외국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착실히 공부해야 한다. 크게 영어를 잘 할 필요가 없다. 영어 단어 만개만 알면 서울대 들어간다. 영어 단어 5000개만 알면 미국 시민권 시험을 칠 수 있다. 아이들의 방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전문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다, 지역이다, 가는 것이 있다. 선진형으로 가는 것은 외국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무 구분, 방향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경험도 없이 공부를 해서 점수로 결정이 나니까 인생이 맨날 실패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조금만 연구해도 누가 알아준다가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

(2)인성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학과는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 전공이니까. 문제는 인성교육이다.

1)각인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다. 반드시 아이들에게는 각인된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여러분도 하고 있다.

2)중독

▶이 각인되어지면 반드시 현상으로 오는가 하면 좋은 나쁜 중독현상으로 온다.

3)체질

▶이것이 조금 있으면 체질이 된다.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게임 중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중독이 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요즘은 미국에서 이런 교육도 있더라. 부정적 중독, 긍정적 중독, 이렇게 해서 그것은 긍정적 중독으로 고치는 것이다. 아이들보고 거의 뇌와 관계된다. 뇌세포가 중독이 되어 버리면 못 고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부분은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4)제자

▶이러다 보면 그 중에 제자가 나온다. 나는 선생님들이 돌풍을 일으킬 만큼 많은 진도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들이 학교 복음 운동을 크게 일으켜야 된다. 저는 반대이다. 선생님은 일단 신자는 불신자는 아이들에게 이것(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을 잘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일생에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것을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이다. 그런데 이것을 해주는 선생님들은 전무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

다 발견하다.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과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적어도 웨마, 토라, 탈무드를 다 읽어버린다. 애가 앞으로 뭐하겠는가 금방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엄마 잔소리 듣다가 유치원 간다. 유치원 가면 전부 여자 교사들 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전부 아이들이 중성이 된다. 거의 여자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다 받아서 장가를 간다. 또 여자를 만나 고생을 한다. 아무도 방향을 안 잡아 준다. 안타깝다. 그렇다고 일년 만에 바뀌는가? 교회에서 못 잡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찾았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해 대학원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할 일이 없어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류광수 너는 목사해라 그런 개성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 내 머리가 그리 날 나쁘네 사업이 바로 망했다. 그때 사업을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내가 가야되는지 길이 뭘지 보질 못했다.

적어도 선교사로 나가려면 그래도 선교사에 대한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봐야 한다. 나는 허드슨 테일러와 리빙스톤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선교이구나 했다. 선교학이란 그 다음 이야기이다. 일단 내 삶의 달란트, 그것이 와야 한다.

말하자면은 빌게이즈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순간 결정이 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만약 빌게이즈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모니터를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뭘 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자신이 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어 비전을 모르겠다, 개가 정상인지 모른다. 못 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다행이다. 제대로 찾아야 된다. 이것을 어릴 때 찾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인이다.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를 맡으면 1년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1년 안에 아주 거기에 맞는 책들을 소개해야 한다. 아이들이 쓸데없이 책을 많이 볼 필요가 없다. 꼭 이 아이에게 힘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는 책들을 봐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독서 교육부터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 방향도 못 잡고 달란트도 무엇인지 모른다. 사실상 중학교까지 와버리면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다. 고등학교부터는 뭘가 걱정이 된다.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걱정이 시작된다. 이미 대학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다. 학비 문제, 시험쳐서 점수를 내야지,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나간다. 청년들은 그냥 미친 상태이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겠는가? 이 책임 모두가 부모와 교사이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명 되겠는가? 여러분이 해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교회 전도사님들께 부탁하고 싶다. 학교에서도 못하고 부모도 못 하니까 누가 하겠는가? 한 번도 간접 경험한, 쉽게 말하면 인턴십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좋은 교사가 무엇인가? 인턴십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는 교사이다.

(3)제자

▶그러다 보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눈이 뜨인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상담이다. 이것을 모르면 상담을 해 줄 수 없다. 해본을 이익도 안 된다. 벌써 어릴 때부터 이미 각인된 것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전혀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본인만 알지, 중독된 것이 있다. 조금만 더 되면 체질이 되어 나간다. 그래서 각인과 중독은 선생님의 상담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제자가 나온다.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 말라. 그것처럼 틀린 것이 없다. 그 사람의 시간값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내게 복음을 들었는데 믿기는 어른들만 믿을 수 있다. 천만 다행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제자가 나올 수 있다.

1)5기도(묵상, 정시, 집중, 무시, 24시기도)

▶이 제자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다섯 가지 기도로 영성교육을 시켜라. 다섯 가지 기도를 알지 않는가? 기도가 다섯 가지만 있었는가? 그러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 아이들이 진짜 제자이면 묵상을 가르쳐 줘야 한다. 조금 애가 규모 잡히면, 응답을 받으면 정시기도를 가르쳐 줘야 한다. 그 다음이 뭐가? 네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난 뒤 할 수 있는 길이 뭘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 그것이 집중기도이다. 나머지 두 개는 그 뒤에 것이다. 현장에서, 아니면 이 시대를 놓고. 무시기도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이다. 이런 부분을 훈련시켜줘야 한다.

2)성령충만

▶그리고 이 제자가 나와서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너만의, 내가 누리는 비밀, 성령충만이 뭘가를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것을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서밋(summit)

▶그리고 항상 서밋에 있어야 한다. 서밋이 안 됐는데, 그렇다. 항상 서밋되게 있어야 한다. 누가 그랬는가? 다투어 갔었다.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서밋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 왕 될거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기능도 닦았다. 항상 서밋에 있어야 한다.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입장으로 왔다. 그 이전에 왕이 될 것을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이라면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나가버렸다. 아무도

모르지만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다. 서밋에 있어야 한다. 내가 비록 노예로 왔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서밋으로. 그러니까 보라.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3. 제자 운동

- ▶그렇다면 여러분 교사는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것을 다 하면서, 교사를 다 하면서 우리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제자운동이다. 제자 운동을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결사대는 조직이 다 있다. 미국에만 400개 넘는 Think Tank가 있다. 어떻게 이기겠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를 움직이는 세 기업들이 종교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기들의 힘을 키우는 건데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기들의 문화를 살리는 건데 말할 때는 문화적 기업, 이렇게 나온다. 국가와 전 세계의 혜택을 다 받고 자기 것을 다한다. 비밀리에 자기들 종교를 만들어놓고 종교적 기업이다.
- ▶어느 장로님이 제게 면담 신청을 했다. 면담을 들어보니 신청도 할 만 했다.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론이다. 물론은 이미 중요한 분야에 문화, 경제를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두 말 할 것 없이 가라고 했다.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제자운동이다.
- ▶자, 이런 눈으로 볼 때 아이들은 불쌍하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시달린다.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지. 자기들은 못해놓고, 학교에 가서 시달리지.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시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난폭해진다. 그런데 못된 놈이라고 한다. 애들이 못되면 얼마나 못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간다. 이런 사이에 어떻게 흑암 문화가 자라나는지 아이들을 게임에 중독시킨다.
- 저는 아이들을 옆에서 가만히 봤다. 한 번은 축구선수들과 밥을 먹는데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있었다. 들으며 적고 있다. 애들이 공부 집중이 안 되겠구나, 참 문화가 중요한데 이것이 문제구나. 아이폰을 내내 들고 다니는데 기도가 되어지는가? 요즘 새로운 문화이다. 그러니까 이제 방황으로 나온다. 회의 중에 휴대폰을 꺼주세요. 옛날에는 없는 문화이다.
-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중에 여러분은 교사이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찍혀있는 다락방의 교사이다. 찍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들이 큰일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도 굉장히 영향을 갈 수 있다.

◆결론- 시간표

- ▶만드시 하나님은 시간표에서 온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열매로 온다. 이드로 장로가 조금 수고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다. 그것이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있는 축복이다. 조금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양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밝은 쪽으로 같이 한번 봐야 한다.
-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저도 교사 1년 해봤다. 굉장히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더라. 그때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야간 학교를 갔는데 이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전도사를 안 한 것이 아닌 하면서, 그런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날 잘 봤는지 오라고 해서 갔다. 힘들지만은 1년을 채웠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 신학 대학원은 공부가 많다. 일반 대학원처럼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짧은 기간인데 내가 이것을 시도해봤다. 그런데 먹혔다. 짧은 시간 힘들지만 반드시 5분간 수업을 안했다. 일단 아이들을 웃겼다. 애들이 힘들니까. 램프들 힘들다. 야간학교 아이들이지만 힘들다. 어쩔 때는 5, 10분도 웃긴다. 웃기는 것은 항상 약간의 시사를 이야기했다. 지난주에 배우가 자살했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을 때는 책을 던지면서 너희들 책 읽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상담 신청을 해왔다. 아, 그때 상담을 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상담을 시작하며 일부러, 학교에서 보면 선생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부터 상담을 한다. 그 아이는 학생인데 얼굴이 굉장히 어둡게 생겼다. 늙은 얼굴 있지 않은가? 덩치도 좋았다.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잡는다. 몇 명하고 난 뒤 그 아이부터 상담을 했다. 내 앞에 오면 양이다. 일대 일이니깐. 그런데 이미 아이를 파악을 했다. 위로한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이야기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더라. 아이가 금방 소문을 돌린다. 다행스럽게도 좋게 돌린다. 저 선생이 생긴 것은 저래도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상담이 쉽게 됐다. 약간 했는데도 사실은 아이들을 도우면 다 나온다.
-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교사이지만 교사가 아니고 미래를 바꾼다. 어떤 시간표가 올지 모른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더 보람도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 “이 날 이후로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라” 삼상 16:13이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는 그날로부터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한다. 여러분 생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문제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이후로 우리 자신이 확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 큰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현장에서 하게 해주옵소서. 학교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흑암세력을 쫓는 영적인 힘을 교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넛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rtu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넛총국)